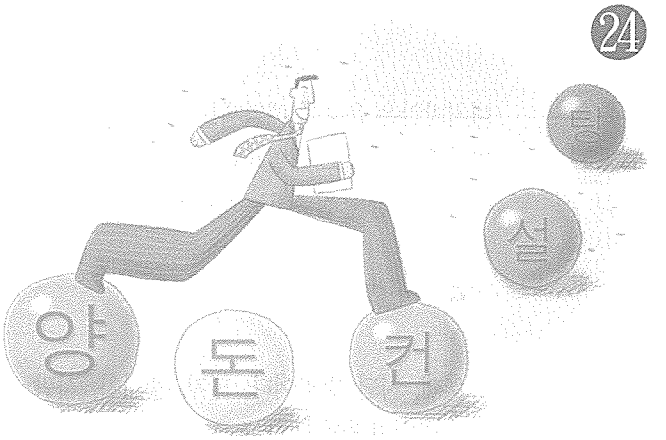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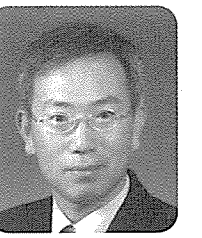




강 화 순 양돈마케팅이사
(주)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돼지를 살리기 위한 농장 운영방법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올해에도 만성 소모성 질병을 해결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이 무척 아쉽다.

질병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왜 질병이 발생되는가를 충분히 인식하지 않고 질병 근절을 위한 방법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병의 발생은 외부로부터 병원균이 침입해 오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만약 외부로부터 병원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면 질병은 발생되지 않는다. 외부로부터 병원균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부 입식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각 돈사별로 돼지의 이동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병원균의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돼지가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이번 호에서는 돼지를 살리기 위한 농장 운영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외부 입식돈의 철저한 격리가 필요하다.

농장에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외부에서 도입되는 입식돈으로부터 기존 농장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격리돈사가 필요하다.

외부 도입돈은 최소한 15일간은 완전히 격리된 돈사에서 머무르게 하여 관찰하고, 외부 도입돈의 적응을 위해 20~30일은 해당 농장의 미생물들에게 점진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기존 농장의 백신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면역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2. 돈사를 비울 수 있는 예비 돈사를 준비하라.

질병의 고리를 차단하려면 병원체의 숙주인 돼지가 없어지게 하면 된다. 국내 문제되는 질병의 대부분은

어느 특정시기에 감염되기 시작하여 어느 시기에 발병을 하여 돼지에게 피해를 준다. 현재 많이 문제되고 있는 4P 문제의 경우 각 농장마다 발병시기와 피해시기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감염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시기가 파악되면 감염되기 2달 전에 문제 질병에 대한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질병이 자돈사에서는 문제없다. 이유자돈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면 이유자돈사는 질병에 상재화되어 있어 아무리 청정한 돼지가 들어오더라도 계속해서 감염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유자돈을 질병이 없는 다른 이유자돈사로 이동시켜 사육하고 문제되는 이유자돈사를 한동안 소독을 한다면 병원체 고리를 차단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돈사를 비울 수 있는 이유자돈사를 준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한 가지 국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유자돈 콘테이너 돈사의 운영 시 처음에는 효과가 있으나 나중에는 효과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자주 듣곤 하는데, 이는 처음에는 이유자돈 콘테이너가 사용되면서 자돈사가 일시적으로 비워지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나중에는 돼지이동이 이유자돈 컨테이너, 자돈사, 육성돈사로 계속해서 이어져 운용되는데 이는 돈사 비우기 효과가 없어져서 일어나는 사항이므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자돈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육성비육사에서 문제가 된다면 육성 비육돈사를 비우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자돈을 한 구간만 위탁 사육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간별 돈사 비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나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만성소모성 질병의 근절방안으로는 좋은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돈사를 비울 수 있는 예비돈사 운영은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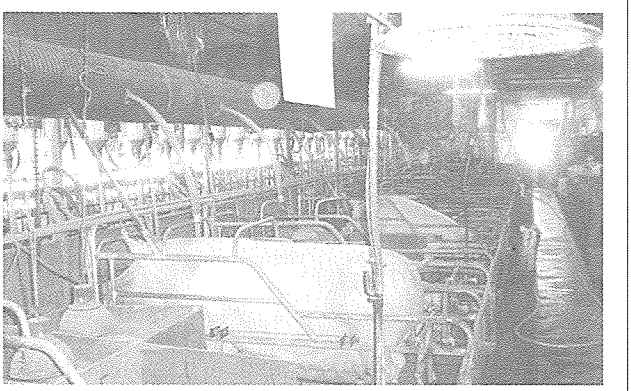
3. 모돈을 정예화하여 숫자를 줄여라.

현재의 모돈두수는 100만두를 돌파하고 있다고 한다. 농장 시설에 맞게 적절하게 모돈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돼지가 많이 죽어 출하할 돼지가 없으므로 출하두수를 맞추기 위해 모돈수를 늘린다고 들 한다.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모돈수를 유지해 두수를 맞추겠다는 생각은 일견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우를 범하게 된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모돈 도태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모돈이 약해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쉽게 질병에 감염되며 이러한 연유로 건강한 모돈도 질병에 쉽게 감염되는 손해를



▲ 모돈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돈이 건강하지 못하며 농장 전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질병이 문제가 될수록, 모돈을 강도태하여 건강한 모돈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게 된다. **두 번째** 모돈 수를 맞추기 위해 육성돈에서 자체 선발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질병이 문제가 되고 있는 농장에서는 대부분 육성 비육돈에서 높은 항체가가 검출되는 것을 볼 때 모돈이 질병에 감염될 소지가 높아진다.

모돈이 건강하지 못하면 자돈이 건강하지 못하며 농장 전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당장은 힘들지만 질병이 문제가 될수록,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는 농장을 계속 유지하려면 모돈을 강도태하여 건강한 모돈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돈이 많으면 팔아라.

모돈의 번식성적이 좋아 자돈 생산이 많아지거나 일시적으로 자돈 생산이 몰리면 자돈사 이후부터 필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욕심을 내어 자돈을 다 키우려다 밀사 등의 문제로 질병을 불러들여 농장전체가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생각하여 농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자돈이 많아 농장운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자돈을 판매하거나 위탁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밀사는 금물이다.

밀사는 돈사의 환경을 나쁘게 해 필연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게 한다.

밀사는 밀사를 부르고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게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밀사를 하지않도록 농장운영 계획을 짜야 한다. 돼지 출하일령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6. 올인, 올 아웃을 철저히 시행하라.

국내 대부분의 농장에서 올인 · 올 아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모돈사와 자돈사에서는 올인 · 올 아웃이 어느 정도 지켜지기는 하나 육성, 비육돈사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골라 빼기 등이 성행하고 있다.

출하돈의 가격을 더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 할 수 있지만 질병근절을 위해서는 꼭 돈사별 출하를 하여야 한다. 규모가 적은 농장에서는 올인 · 올 아웃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주간 관리에서 그룹관리(Batch system)를 하면 올인 · 올 아웃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7. 돈방을 비우자.

질병의 차단을 위해서는 돈방을 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돈방을 한꺼번에 비우고 청소, 수세, 소독, 건조,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돈방을 비울 수 있는 농장 운영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최소한 각 단계별로 1주일은 비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육사는 돈방을 비우고 수세,소독을 하는 기간만큼 다음 번 출

하일령을 단축할 수 있다.

8. 잘 먹이자.

돼지가 먹으면 크고 산다. 질병이 발생되면 먹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더욱 더 약해져 질병은 더욱 더 심해지게 된다. 돼지를 잘만 먹이면 잠재해 있는 만성 소모성 질병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돼지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과 충분한 급이기와 급수기 제공 및 기호성이 높고 소화가 잘되는 고영양 · 고효율 사료를 급여하도록 최선을 다 할 필요가 있다.

9. 환돈방을 운영하자.

돼지를 키우다 보면 환돈이 생기게 마련이다. 환돈 발생을 줄이는 노력을 하여 환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생기는 환돈은 별도의 환돈방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질병도 관리할 수 있고, 환돈도 제대로 키워내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환돈방을 설치하여 환돈에 의해 농장내에 질병이 계속 문제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10. 백신접종 등 방역을 철저히 하자.

만성 소모성 질병의 발생 및 피해가 심하고 백신 및 치료약제가 잘 듣지 않다 보니 백신 접종을 하지 않거나 치료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다.

현재의 질병은 어느 하나만 개선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농장의 질병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먼저 하고 이에 대한 백신접종 등을 철저히 시행 할 필요가 있다. 질병의 유입 및 발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만 근절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기본에 충실한 차단 방역과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돈군의 면역 능력을 높게 유지하도록 하여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에 충실한 농장관리 방법을 철저히 적용하여 질병 없는 양돈장을 다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 양돈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설마하는 방심속에 멀어지는 선진양돈